

# 섬진강 진안-하동 하나되다

### 섬진강권 주민 교류협력 행사... 백운면 두원마을·하동읍 목도리 자매결연

섬진강권 지역주민 간 교류협력 행사가 18~19일 이틀간 전북 진안군 백운면사무소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영호남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섬진강 최하구지역인 하동읍과 섬진강 발원지인 백운면 두원마을 주민 간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시작했다.

첫째날인 18일 오후 4시에 진행된 교류 기념식에는 최성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이항로 진안군수, 진안군 백운면과 하동군 하동읍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대회의 시간을 가지며 지속적인 교류협력 방안 토론과 향토문화 체험,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또한 세계 회귀 기위 1,5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북부미산 가위박물관과 용담호, 물문화관을 관람하고 홍삼 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튿날인 19일에는 자매결연 마을인 하동읍 목도리 주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아 두원마을 다목적체험관 준공식과 함께 소운동회를 개최하여 몸과 마음이 하나 돼 웃고 즐길 수 있는 주민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

최성규 위원장은 "국민통합은 결코 거대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만은 아니다. 작은 시골마을 간 연결의 고리는 위원회에서 이어주었지만, 이를 계기로 동·서 지역 주민 간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모두가 하

나되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이번 행사가 세 번째 공식적인 만남으로 두 마을 주민이 우애 좋은 형제처럼 친밀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하동 목도리 마을과 진안 두원마을의 끈끈한 인연이 모범이 되어 영호남이 하나되어 화합하는 물결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016년부터 섬진강권 지역 간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동 목도리마을이 진안 홍삼축제, 마이산 달빛음악회 등 지역 중요행사에 참석하는 등 동·서 지역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화합과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우리 진분홍빛 꽃잔디길 걸어요'

### 진안 원연장 꽃잔디 축제... 21일~23일 열려

진안군 진안을 원연장 꽃잔디 동산이 진분홍빛 꽃잔디로 뒤덮였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진안 원연장 꽃잔디 축제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우리 꽃길만 걸어요'란 슬로건으로 원연장 꽃잔디 동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꽃화관 만들기, 꽃잔디 화분만들기, 꽃등 만들기, 꽃잔디 타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 농특산물 판매장터 등으로 알차게 준비돼 있다.

또한 봄맞이 공연이 기획되어 있고 꽃바람신비람 보물찾기와 꽃잔디 사진 전시 등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예년에 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축제기획 콘테스트'를 열었다.

특별 경쟁을 통해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해 이번 축제 때 '전구모양 플라워 꽃등 만들기' 체험을 진행할 계획으로 관광객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신애숙 원연장마을축제조직위원장은 "마을에서 지역주민 뿐 아니라 관광객도 즐길 수 있는 꽃잔디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했으니 진안 원연장으로 가족, 연인과 꽃 나들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 꽃잔디는 현재 70% 정도의 개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축제 시작일을 즈음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연등 탐점등행사 개최

무주군은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연등 탐점등행사(무주군 주최, 무주군 연등축제 봉행위원회 주관) 19일 군청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원동사 진일 스님(봉행위원장)을 비롯한 관내 사찰 주지 스님들과 불교대학교 학생, 그리고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의미를 더했다.

황 군수는 "17년을 이어온 행사지만 올해는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중요한 시기에 있고 세월호 미수습자의 귀환을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할 때라 더 의미가 크다"며 "1,100개 연등과 함께 불을 밝힌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그리고 66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농·특산물대축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무주군 군청 광장에 설치된 연등 탐은 높이 9m, 둘레 24m 규모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1,100개의 연등이 설치됐으며, 내달 말일까지 이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해줄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이기태 4.19 혁명 열사, 당신이 봄이어라!'

### 무주·영동군, 57주년 추모식



故 이기태 열사 추모식이 19일 4.19 혁명 제57주년을 맞아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입치마을(추모비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무주군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영동군 박세복 군수와 영동군의회 정준택 의장, 무주문화원 김내생 원장과 영동문화원 배광식 원장을 비롯한 유족들과 두 지역 기관사회 단체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례와 함께 분향과 헌화의 시간을 가지며故 이기태 열사를 추모했다.

황정수 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부정 부패에 항거하던 그대는 가고 없지만 그 용기, 그 기개만은 희망이 되어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자유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의를 뿌리내린 당신의 봄이 후손세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故 이기태 열사는 충북 영동군에서 태어나 무주초등학교와 무주중학교,

대전고등학교를 마친 후 경희대학교 법대에 입학했으며, 재학 중 학생회장으로서 3.15 부정선거와 민주항쟁에 나서 24세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무주군 무주를 한풍루에는 '민주의 선봉 4.19 혁명 기념비'가 서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념비문은 1960년 7월 당시 재경무주학우회가故 이기태 열사의 민주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귀감으로 삼기 위해 무주중학교 정문 앞에 세웠던 것으로 1992년 도시계획에 의해 이곳으로 이전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의의회, 2016 세입·세출 결산검사

### 한규태 의원 외 4명 위원 위촉... 5월9일까지 실시

장수군의의회는 19일 한규태 의원 외 4명을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하게 검사할 계획이며, 현장방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결산지침의 준수여부와 재정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기홍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 간 상호 협력해 2016회계년도 예산을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했는지 충실히 감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한규태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니만큼 낭비된 예산이 없는지 최선을 다해 결산검사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동료 위원들과 서로 협력해 위법, 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반드시 지적함으로써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의의회는 지난 2월 22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한규태 의원과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행정 경험을 겸한 민간위원으로 고강영, 이도형, 이종성, 조영호 등 4명을 선임 의결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장수군, 와룡·방화동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장수군은 '2017 와룡·방화동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성수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와룡자연휴양림의 숲속야영장 2개소를 정비하고, 으름덩굴, 좁작살

나무 등 620주를 아외학습장주변에 식재할 계획이다.

방화동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관 보수공사, 세미나실 방염처리 및 휴가촌 내 아영데크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성

시기 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이번엔 보완사업으로 삼림욕장, 오토캠핑장,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 방문객에게 보다 나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휴양림 가용률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 '친환경적인 벌채 방안' 현장토론회 개최

친환경적인 벌채 사업을 유도하고, 입입기계화를 통한 목재생산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8일 남원시 인월면 상산리 일원 국유림에서 '친환경적인 벌채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무주국유림관리소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벌채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친환경적인 벌채방법, 입입기계장비를 활용한 목재 수집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경찰, 범죄 안전 캠페인 실시

무주경찰서는 19일 등산로를 오르려는 구간에서 경찰서장, 적상면장, 지역주민, 사회기관 단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안전한 무주 만들기를 위한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및 사이버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무주적상산 등산로 주변, 주택가, 청소년 탈선 우려 및 범죄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다 함께 참여하여 환경을 개선·정비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생활주변 기초질서 지키기와 사이버안전(보이스피싱 등)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나영민 서장은 "범죄취약지 환경을 정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정무주를 만들자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안활동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 眞心 홍삼주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